

# 청교도적인 분위기가 백미

나다니엘 호돈 지음 《일곱박공의 집》

《일곱박공의 집》(세계문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다니엘 호돈의 작품이다. 비록 동화를 연상케 하는 제목과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표지 그림 때문에 이 책을 사긴 했지만 《큰 바위 얼굴》과 《주홍글씨》 못지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소설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마녀사냥과 청교도적인 분위기는 《주홍글씨》를 연상케 한다.

이 작품은 '일곱박공의 집'에 전해오는 저주스런 내력에서 출발해 그 저주가 극복되면서 끝난다. 때문에 사건이 전개되는 장소는 시종일관 일곱박공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주의 출발은 핀치온 대령이 우물이 있는 토지에 자신의 저택을 지으려는 생각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 그 결과 땅 주인인 매튜 몰은 무고하게 마법사라는 누명을 쓰고 마녀사냥 때 죽임을 당한다. 물론 그 땅 위에 일곱개의 박공으로 만든 집이 들어 서게 된다. 하지만 얼마 후 일곱박공의 집 완공 파티를 앞두고 핀치온 대령은 의자에 앉은 채로 죽음을 맞는다. 매튜 몰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핀치온 가의 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은 닭이다. '첸티클레어와 그의 가족들'이라 불리는 이 닭들은 핀치온 집안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열쇠다. 닭이면서 전연 닭과 다른 생김새를 가진 이 동물은 쪼글쪼글한 데다 생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후 2세기가 흐르면서 이 가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어두운 핀치온 가문에

구원이 손길이 나타난 것이다. 그 변화를 도모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피비'이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이 소녀는 핀치온 가문의 유전적인 성격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일곱박공의 집에 얽혀 있는 핀치온가와 몰 가는 피비로 인해 화해하게 된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부분이 이단적이다. 어둡고 느린 느낌을 주는 도입부에 비해 결말 부분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해피엔딩이 결말을 장식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감을 준다. 그러나 불균형적인 구성과 지나친 우연성만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으라'는 충고를 전하고 싶다. 지루한 작품을 끝까지 다 읽은 사람만이 소설의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청교도적인 분위기를 아름다운 서정성과 인물의 내면심리를 통해 표현하거나 원수지간이 서로 화해하는 내용 등을 수많은 상징물을 통해 보여준다. "역시 《큰 바위 얼굴》의 작가답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서다.

김인식

수원시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산2-2 수원대 경제학과

#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여행

파올로 코엘료 지음 《연금술사》

어느날 밤, 청년은 똑같은 꿈을 연거푸 두번 꾀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밑에서 눈부신 황금을 찾아내는 꿈이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산티아고'이다. 《연금술사》(파올로 코엘료 지음, 염동하 옮김, 고려원)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꿈의 계시를 좇아 길을 떠난다. 현실이 주는 안락함을 팽개치고 과감하게, 스페인에서 이집트를 향해 그 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 꿈이라는 존재를 새삼 느끼게 된다. 단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살 뿐, 산티아고처럼 자리를 박차고 더 넓은 세상으로 꿈을 찾아 떠난다면, 이 세상을 통해 얼마나 귀중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산티아고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향해 떠나면서 애지중지하던 양을 판다. 여비 마련을 위해 양치기의 신분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비를 도둑맞은 다음에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수정그릇을 팔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은 대가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단 행렬에 끼게 된다. 지난한 여행길에서 그는 아름다운 처녀 '파티마'를 만나고, 또 이 소설에서 진리자의 역할을 하는 연금술사를 만난다. 청년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한가지의 간절히 원할 때, 천지 만물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청년은 자신의 꿈을 '자아의 신화'라고 해석하고 어떠한 역경이라도 헤쳐나간다.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 숨어 있는 보물을 향

해. 그가 스페인에서 만났던 멜키세덱왕, 집시, 연금술사 이 모두가 청년의 꿈을 이뤄주는 '표적'들이다. 수많은 표적들을 지표로 삼아 길을 가는 동안 청년은 진리를 깨우친다. 특히 연금술사는 그에게 세상 이치를 터득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한편, 연금술사가 왜 세상사람들에게 필요한가를 역설한다.

"사람들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물을 찾으려 하고, 그 후에는 이전의 삶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지."

때문에 남은 세상이 더이상 그가 남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남의 역할을 다할 뿐, 결국 금으로 변하게 된다는 진리이다. 이 소설은 사람들이 오직 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코 금을 얻을 수 없다는 단순진리를 역설하고 있다.

익숙해진 사물 속에서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산티아고가 피라미드에서 땅을 파지만 끝내 그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보물이 자신의 고향 스페인의 낡은 성당에서 발견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보물찾기'를 '자아의 신화'에 빗대어 그 먼 여정을 여행하는 이 소설은,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혹은 "만물 속에 진리가 숨어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신화와 성경에 빗대어 은유하고 있다.

김지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청운APT 4동 G203호

- 집을 파는데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상속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
- 상속세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
- 체납한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
- 부당한 세금을 내고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으로 하고 싶은 사람
- 재무제표라도 읽어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
- 부기의 원리에 대해 알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

상속으로 할까  
증여로 할까

## 조유현 세무상담



세무관련 문제를 후련하게 해결해 주는 현대인의 생활필독서

도서출판 **다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2-3  
(053) 252-9114(대) · FAX 252-9334

## 어디서 했냐구요?

대일그래픽스에 오시면  
당신도 기분 좋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기종 (인클, 애플) 맥킨토시 · 아래아한글 · 윈도우즈
- 풍부한 서체 (200여가지 서체)
- 자유로운 SIZE (6" ~ 16")

인화지 · 필름 · 레이저 교정지 · 컬러프린터

**대일그래픽스** ☎ 053) 252-4574